



정유사들이 7일 0시를 기해 기름값을 인하 했으나 이날 광주지역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종전과 동일한 기름 값을 게시한 채, 영업을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 기름값 100원 안 내렸어?” 주유소 ‘실랑이’ 곳곳 혼란

광주 80%가 자영주유소... “인하 전 물량이라 불가”
일부선 카드결제시스템 미비로 할인혜택 못 받기도

국내 정유사들이 7일 0시를 기해 일제히 기름값 100원을 인하한 첫날, 주유소에서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곧바로 가격 인하분이 반영됐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기름 가격을 내리지 않은데다, SK에너지는 카드결제시스템 미비로 일부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광주지역의 주유소 곳곳에서는 소비자들과 주유소 업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가격인하를 예상하고 주유를 하러 온 시민들은 전날과 다를 바 없는 기름값에 업소에 따져 물었고, 업소 주인들은 기름값 인하를 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느라 혼을 빼야 했다. 남구 진월동에서 한 자영주유소를

운영 중인 나모(37)씨는 “지난달 말 이미 2주 분에 해당하는 기름을 구입, 재고로 남겨둔데다 그 기름은 비싼 값에 구입했기 때문에 당장 가격인하분을 반영하기 힘들다”며 “거의 모든 자영주유소들이 월말이면 재고를 항상 가득 채워놓기 때문에 이달 15일까지는 대부분의 자영주유소들이 가격을 인하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주유조합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는 총 334개이며 이중 자영업소가 278곳, 직영업소가 56곳으로 기름값 인하에 동참하지 못한 주유소가 80%를 넘는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픈넷(www.opinet.co.kr)의 유가 통계를 봐도 지난 6일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1952.19원, 경유는 1791.36원이었으나 7일 기준으로 휘

발유 1943.76원, 경유 1782.77원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10원 가량 내렸을 뿐이다. GS칼텍스와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3사는 공급가에서 100원을 할인했지만, 신용카드나 보너스 카드 등을 통해 100원을 할인하기로 한 SK에너지는 당장 할인금액이 신용카드에 반영되지 않아 곤욕을 치러야 했다. 신용카드사와 협의가 안돼 결제시스템 구축이 이달 20일까지로 미뤄진 것. 또 신용카드 결제 소비자에게 보너스카드 등을 이용해 할인금액을 적립해 주고 있지만 보너스 카드가 없는 소비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인하방식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직장인 박모(34)씨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동참하지 않는 기름값 인하 발표가 실제 소비자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지 모르겠다”며 “인하 시기나 방법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기름값 인하를 받기로 소비자들만 골방먹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일본 유학포기 잇따라 자매결연 대학들 고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40%가 중도 귀국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커지면서 일본 유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일본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교환 학생 자격(1년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7일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이미 일본에서 유학중인 교환 학생들은 방사능 피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1년 과정을 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40%에 달하며, 이번 4월이나 5월에 일본으로 가야 할 학생들은 30% 정도가 유학을 포기했다. 전남대의 경우, 교환 학생으로 일본에서 수학중인 12명 가운데 5명이 과정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또 4월부터 시작되는 학기에 17명이 합류해야 하지만 이중 4명이 포기한 상태다. 조선대도 11명의 학생이 4월에 개강하는 자매결연 대학으로 떠나야 했지만 4명이 유학을 포기했다. 동신대는 자매결연 대학의 개강이 1개월 연기된 5월로 결정되면서 아직 교환 학생들의 일본 유학에 대한 최종 방침을 굳히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학을 원하고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이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환학생들은 거의 일본 유학을 고집하지만 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과 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1분
해질 18시 59분

달돋이 08시 36분
달질 23시 27분

지역	오전한때비	기온
광주	오전한때비	9/19℃
목포	오전한때비	8/16℃
여수	오전한때비	11/17℃
나주	오전한때비	8/19℃
완도	오전한때비	9/18℃
구례	오전한때비	9/20℃
해남	오전한때비	8/17℃
장흥	오전한때비	9/18℃
순천	오전한때비	10/19℃
영광	구름점적자여름	8/16℃
진도	오전한때비	8/16℃
전주	구름점적자여름	8/18℃
군산	구름점적자여름	8/15℃
남원	오전한때비	7/18℃
옥산도	구름점적자여름	7/11℃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1.0~2.0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1.0~2.0	☀	☀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목포 04:50	10:0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11:17	05:18

◇주간날씨

날짜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5/19	6/19	5/18	6/20	8/20	8/21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한국인 절반 “자연재해로 지구 종말 온다”

갤럽 646명 설문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 지구의 종말이 오리라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지난달 30~31일 종말론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지구 종말이 온다’면 무엇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56.0%가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를 꼽았다고 7일 밝혔다. 다른 요인으로는 전쟁(9.0%), 핵전쟁과 충돌(8.0%), 질병(6.6%)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10.7%는 21세기에 종말이 올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들 가운데 65.3%가 자연재해로 종말이 닥칠 것이라고 답했다. ‘21세기 종말’을 예상한 이들 가운데는 19~29세 젊은 층(23.4%)과 여성(13.3%)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49세는 3.3%로 가장 적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43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9%포인트다. /연남뉴스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광주시교육청 출산장려 표어 공모 광주시 동구

광주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 계약(기간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용된 기간제 교사는 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14호봉 상한선에 묶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연금 미수령자에 한해 퇴직 전 근무한 호봉을 모두 인정 받는다. 광주지역 일선 학교 기간제 교사는 1200여명이며 운영지침 개선에 따라 혜택을 볼 교사는 최소 200여명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시민들에게 표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3대가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동구 ▲임신·출산·양육이 주는 보람 강조 ▲출산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 부각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구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공모양식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복지사업과 출산·다문화담당 (062) 608-2620 /양수현기자 yang@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스마트한

바로 지금! 세상이 열린다!

ALL-IN-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

오프라인 지면광고에 수록된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고 또한 번외정보 어플을 통하여 번외정보 검색이 가능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고객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한국전 화변호부의 새로운 온,오프라인 통합서비스입니다.

올인원 서비스 상담 문의 : (062) 514-1144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KOREA TELEPHONE DIRECTORY CO., LTD.